

제40회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66 석사4백59 학사3천8백1명 수여

91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 오늘 오전11시부터 교무처장 사회로 노천극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전기학위수여 대상자는 학사 3천8백1명, 박사 66명, 석사 4백59명(일반대학원 2백66명, 교육대학원 75명, 경영대학원 59명, 행정대학원 33명, 신문방송대학원 6명, 산업정보대학원 14명, 평화복지대학원 6명)이다. <관련기사 3.4.5면>

또한 각 대학원 수료자는 경영대학원 49명, 행정대학원 44명, 신문방송대학원 13명, 교육대학원 1명 등 총1백12명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은 서울캠퍼스 신용문(경영대·경제), 수원캠퍼스 한정미(외대·일문)에 수여했다.

단대별 수석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학장상 수상자는 문리대 박승전, 공대 김정식 등 총17명이

며 평균 4.00이상의 자에게 주어지는 학과별 우등상 수상자는 총 49명이다.

개회식선언과 국민의례로 시작되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국민교육헌장 낭독에 이어 학위수여식이 진행되며 학위수여순서는 박사학위, 석사학위, 특수대학원 수료자 수료증 수여에 이어 학사학위, 간호전문대학, 호텔경영전문대학 졸업장 수여가 있게된다.

오늘 함께 거행되는 간호전문대학, 호텔경영전문대학 학위수여식에는 각각 1백18명, 4백73명이 졸업장을 수여받고 총장상은 김영주(간호전문대학)와 이수정(호텔경영대학·관광통역)에 수여한다.

조영식 총장은 이날 훈사를 통해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깃들길 전경희인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라고 격려한 뒤 "지금의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진일군 국제육상 우승 태권도 아시아 제패

지난11일 오사카 국제실내육상경기대회에서 국가대표로 단독 출전한 이진일(체과대·체육1)군이 m달리기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지난1월28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태권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권태호(체과대·태권도4), 임명호(체과대·태권도2)군이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지난3일 성남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핸드볼대회 결승전에서 본교 남녀핸드볼팀이 상무실업팀에 아

깝게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4대25 득점 1점차로 3연패를 놓친 이날 시상식에서 조병연(체과대·체육3)군과 윤경신(체과대·체육1)군이 각각 최고득점자상과 신인상을 받았다.

한편 수원캠퍼스에 92년 1학기부터 교양체육과목으로 에어로빅1강좌가 신설되어 김영숙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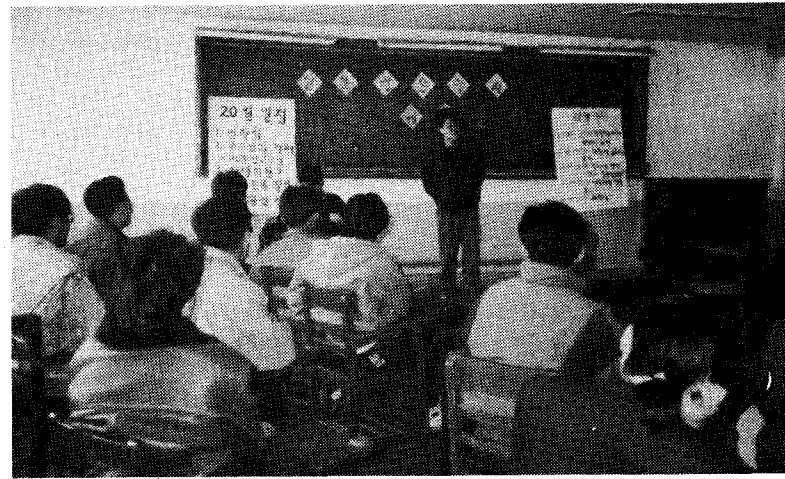
방중 보수공사 활발 수원전학과 건의함 설치

수원캠퍼스 관리과는 동계방학 중 학내보수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산대 도예과 가스실 시설공사를 마쳤으며 공대앞에 가로등을 새로 4개 설치하고 37개 학과별 건의함을 제작해 각 학과 장실 문 앞에 부착했다.

또한 교내 게시판의 도색과 그간 남녀 공간분리가 되지않아 불만의 대상이 되어오던 보건소내 침상 칸막이를 설치했다. 이에반해 학생회관 전면 발코니계단과 조경공사 및 정문과 체대앞 도로등은 날씨 관계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방학내의 공사완료가 힘든 실정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관리과는 문리대 생물학과, 지리학과 야간학부 개설에 따른 실험기자재 증설과 실험실 개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설레이미 열기로



학생평점

대학생활에 대한 설레이미와 함께 시작된 예비대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21일 신문방송학과 예비대학 모습> <서동국 기자>

9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8일 체과대 시작, 단과대별 실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올바른 대학생활의 소개를 목표로 지난 18일 체과대 M.T를 시발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을 열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오늘 잠실역도체육경기장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전체 O.T를 진행

한후 사대, 의대, 음대, 체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대는 24일부터 3박4일 간 단대별 M.T를 떠난다. 24일 전체행사에서는 부총장 인사들의 학교측 행사에 이어 총학생회 중앙위원회 소개와 노래여울의 노래강습이 있게 된다.

▲문리대·가정대·경영대·경주도투락월드 ▲법대·경기도 가평 ▲한의대·경기도 고양 ▲치대·남이섬 ▲약대·속리산 ▲26~28, 사대·속리산 ▲27~29, 의대·속리산 ▲27~29, 음대·체대·일산

한편, 수원캠퍼스의 경우 18일 체과대를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별로 3박4일간 M.T를 먼저 다녀온 후 학교에서 별도 O.T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3월9일 전체 O.T를 치루게 된다.

각 단과대별로 진행되는 이번 O.T는 단과대학장 주관하에 교수인사 및 과별 문화행사등을 실시하게 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대 M.T] ▲18~21, 체과대·예지원 ▲20~23, 의대·속리산 아람호텔 ▲24~27, 사대·자대·운양 유스호텔 ▲24~27, 산대·경기도 마서 서립수련원 ▲26~29, 공대·천마산 수동캠프

[학교 O.T] ▲26, 외대·오전10시~4시 체과대 시청각실, 공대·오전10~1시 공대시청각실 ▲27, 산대·오전11시~4시 체과대 시청각실, 사대·오후1시~4시 공대 시청각실 ▲28, 자대·오전10~12시 공대시청각실, 체과대는 O.T와 M.T를 겸한다.

경희의료원 수턴 의료봉사 카툰국립대학과 자매결연도

본교 의료원 수턴 의료봉사단은 지난 12월30일 의료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1월 3일 수턴으로 의료봉사를 떠났다.

의료봉사단은 경희의료원 개원 20주년과 세계 평화의날 제정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꾸려진 것으로 윤송(경희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외과 교수와 의료진 9명 학생 8명 행정관리1명 홍보요원 3명 등 총22명으로 구성되었다.

1월5일부터 의료봉사에 들어가 20일간 아프리카 수단공화국의 수도 카툰 근교에서 의료 봉사를 실시한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비뇨기과, 피부과, 치과등 총7개 항목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봉사기간동안 약1만명 정도에게 의료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봉사단은 의료봉사활동 이외에도 기생충학 교실개설

카툰 수단국립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다음달 2일 입학식

서울,노천극장 수원은 3호관앞 운동장

9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오는 3월2일 서울, 수원 양 캠퍼스에서 각각 실시된다.

총 4천3백80명의 신입생을 맞이하게 되는 이번 입학식은 서울의 경우 오전 11시 노천극장에서 간호전문대학과 함께 식을 거행하며, 수원은 오후2시 수원캠퍼스 체육과학대학 앞 운동장에서 식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입학식은 수원캠퍼스의 발전과 학사업무 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처음으로 서울·수원 캠퍼스가 분리하여 입학식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호텔경영전문대학 입학식은 후기 입시도난사건으로 합격자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오는 4일 올림피아 유스호텔에서 입학식을 오리엔테이션과 겸해서 갖는다.

조영식 총장은 이날 훈사를 통해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깃들길 전경희인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라고 격려한 뒤 "지금의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당부했다.

'고향논집' 원고 모집 대학원 총학생회는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수자, 동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92년도 '고향논집'에 실릴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6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대학원 총학생회 및 교환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면된다.

보직교수 7명 신임 발령

서울·수원 교무처장에 신용철,강정모 교수

학교교수는 총7명의 보직교수를 신임발령했다.

이번 보직교수 임기는 2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신임된 보직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문리대학장:한재경(문리대·물리학) 교수 ▲의대학장:양문호(의대·병리학) 교수 ▲치대학장:최호영(치대·보존학) 교수 ▲교무처장:신용철(문리대·

사학) 교수

[수원캠퍼스] ▲자연대학장:김정현(자연대·환경학) 교수 ▲교무

처장:강정모(사과대·무역학) 교수

▲학생처장:김광환(자연대·수학) 교수

업무하중 따른 적정인원 필요

▼본교 교직원중 8명이 29일자로 정년 퇴임을 한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충원되는 인원은 한명도 없다. 올해뿐이 아니라 최근 몇년동안에는 정년퇴임이나 이직, 직위해제 등으로 학교를 떠난 직원들의 빈자리가 하나도 메워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리직에서 최근 3년동안에 10여명의 인원이 퇴직을 했으나 충원된 인원은 한명도 없는 것을 보면 본교의 직원들은 신생아가 없는 셈이다.

▼학교측은 교수·기자재확충등의 교육환경개선과 물가인상등을 이유로 예산에서의 인건비절감을 주장해왔다. 직원의 수를 줄여 소수의 인원으로도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이룬다는 방침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본교 교직원수는 학교규정에 의해 정해진 인원보다도 130

여명이 부족하다 한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학교행정은 실제로 지연되는 때가 있는데 때로 비품수리는 보름가지도 기다려야 하며, 서류신청은 하루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개인에게 할당된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그 처리시간도 길어지기 일쑤이다. 이렇듯 인원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운영체계가 합리적인가하는 의문을 품게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측은 적은 인원의 합리적 운영체계가 인 해 인원부족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직원부족으로 인한 학교측의 인원수급 대안으로는 전산화의 도입과 환경·관리직의 용역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산화의 도입은 그 체계가 체계화 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 보아서도 이 기간에는 오히려 업무량이 많아 지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측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교직원 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학교의 3부체중의 하나인 직원의 역할들을 약화시킴으로 학교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현재 직원의 부족현상이 빚어내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아닌 근로자들의 노동강도의 강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연 감원시에 취해져야 할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주변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단기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충은 이해되지만 현재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분야 직원의 시급한 증원이 요청된다.

수원 스쿨버스 요금20%인상 강남 6백60원·수원2백60원·신갈 동결

수원캠퍼스 스쿨버스 요금이 오는 3월2일부터 강남행 6백60원, 수원행 2백60원으로 각각 1백10원과 40원씩 인상된다.

이번 인상요인은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24.1%로 대폭 오르고, 올레 기사봉급이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25%가량 인상된 반면 학교지원금은 1대당 12만3천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업자측이 인상요구를 해 음에 따라

인상조치 된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교와 업자간 2차례 면담을 통해 업자측 요구 7백50원에서 최종 6백60원으로 타결했으며 신갈에서 학교로 운행하는 차량은 100원으로 예년과 동일하다.

한편, 지난해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아침시간에 한해 학교까지 운행되던 관광버스는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동계방학중 임시 운행을 했던 스쿨버스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오전7시40분부터 오후8시까지 정상운행하게 되며 3월2일 야간과가 개강하면 강남행이 9시30분과 40분 2대가 증차되고 기존 9시까지 운행되던 수원행은 야간과과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오후10시차를 1대 증차할 예정이다.

인복위 아르바이트생 모집 내달 7일 신청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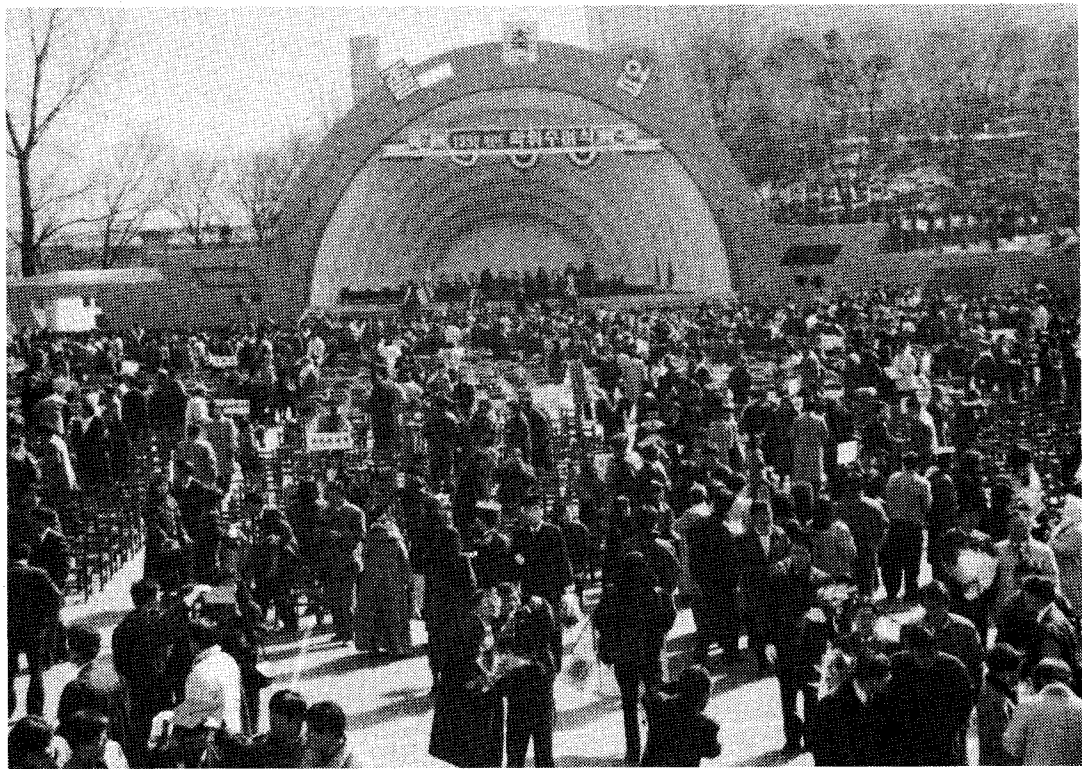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에서는 복지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21일부터 다음달 7일 오후 5시까지 학부모집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각 1부씩을 인복위에 제출하면된다.

발표는 추후공고할 예정이며 3월9일 오후 5시에 인복위에서 소집이 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년을 갈아온 먹 이제 사회라는 화선지에 펼쳐나갑시다



이제 정든 교시탐을 뒤로하고

여러분 각자의 본격적인 여정을 걷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무사안일을 용납하지 않는

직장으로 혹은 더욱 심오한 학업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노력, 연구를 필요로 하며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곧 패배(敗北)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라는 더 넓은 차원의 세계를

여행할 때입니다.

진실로 졸업은 시작입니다!

대 학 주 보 사